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진도별 모의고사 (4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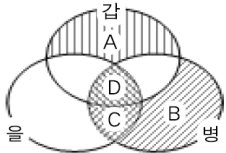
01. 갑, 을, 병은 조선 시대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측은지심을 밋고 나가면 인(仁)을 얻을 수 있고, 수오지심을 밋고 나가면 의(義)를 얻을 수 있으며, 사양지심을 밋고 나가면 예(禮)를 얻을 수 있고, 시비지심을 밋고 나가면 지(智)를 얻을 수 있다.

을: 이(理)에 동정(動靜)이 있으므로 기(氣)에 동정이 있다. 만약 이에 동정이 없다면 기가 어찌 스스로 동정하겠는가? 대개 이가 동하면 기가 따라서 생겨나며(生), 기가 동하면 이가 따라서 나타난다(顯).

병: 이는 본말(本末)과 선후(先後)가 없다. 맑음, 탁함, 순수함, 잡됨 등에도 이가 있어서 그 성(性)이 되나, 그 본연의 묘함은 그대로 같다. 이에 비해 기는 본말이 있고 선후가 있다. 이러한 기가 조금도 쉬지 않고 움직이므로 만 가지 변화가 생기는 것이다.

Q-1. 갑, 을, 병의 입장을 다음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진술로 옳은 것은?



〈범례〉
A: 갑만의 입장
B: 병만의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 ① A: 덕(德)은 마음의 이치(理)로서 지속적인 실천에 의해 만들어진다.
- ② B: 경(敬)으로 내면의 감정을 주재하여 사욕(私慾)을 극복해야 한다.
- ③ C: 이를 수양하고 기를 단속해야 참된 마음의 본체를 되찾을 수 있다.
- ④ C: 인의예지(仁義禮智)는 마음의 본체이고, 사단은 마음의 작용이다.
- ⑤ D: 인간의 혈기(血氣)와 우주 만물의 기는 분리되어 생각될 수 없다.

Q-2.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가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 학문은 이(道)를 안에서 구할 뿐이고, 밖에서 구하지 않는 것이다. 이른바 안에서 이를 구한다는 것은 돌이켜보아 안으로 살피고(反觀內省) 밖에서 사물을 꿰는다는 것이 아니다. 오직 안에서 스스로 만족할 것을 찾는 것이고 다시 밖의 득실을 일삼지 않는 것이다.

〈보기〉

- ㄱ.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인 판단과 실천의 유일한 주체임을 간파한다.
- ㄴ. 도덕적인 행위는 천리인 참된 앎(良知)이 발현된 것임을 간파한다.
- ㄷ. 인간의 본성이 선과 악을 좋아하는 성향(嗜好)이 아님을 간파한다.
- ㄹ. 인간의 마음(心)이 곧 이치이며 사덕이 내재적인 것임을 간파한다.

-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02.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현재 유교의 정신은 오로지 제왕의 편에 있고 인민 사회에 보급할 정신이 부족하다. 대한의 유교는 쉽고 정확한 법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질질 끌고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는 공부를 전적으로 숭상한다.

을: 도덕을 위하는 조선은 있고 조선을 위하는 도덕은 없다. 석가가 들어오면 조선의 석가가 되지 않고 석가의 조선이 되며, 공자가 들어오면 조선의 공자가 되지 않고 공자의 조선이 된다. 나는 조선의 도덕을 위해 통곡하려 한다.

- ① 갑은 양지(良知)를 확충해 대동을 실현하려는 정신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 ② 갑은 도덕성 함양을 토대로 서양의 과학과 산업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본다.
- ③ 을은 국가의 경쟁력이 사회 각 부문에서의 국민적 역량에 달려있다고 본다.
- ④ 을은 우리 역사를 주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민족혼을 보존해야 한다고 본다.
- ⑤ 갑, 을은 성리학적 질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03. 갑, 을은 한국 사상가들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사단은 칠정을 겸(兼)할 수 없으나 칠정은 사단을 겸할 수 있다. 사단은 전체를 아우르는 점에서는 칠정만 못하고 칠정은 순수한 점에서는 사단만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을: 사단과 칠정은 다 같은 정(情)인데 어찌하여 이름을 달리 하겠는가? 진실로 이 없는 기가 없고 기 없는 이가 없지만 가리켜 말하는 것이 다르면 양자의 구별이 있게 된다.

〈보기〉

- ㄱ. 사단은 사단의 확충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가?
- ㄴ. 사단은 이가 발한 성

04. 갑, 을, 병은 유학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칠정(七情)의 기(氣)에 대한 관계는 사단(四端)의 이(理)에 대한 관계와 같다. 그 발함에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에 모두 가리키는 바가 있다.

을: 칠정의 밖에 다른 정(情)은 없다. 사단은 다만 선한 정의 별명이다. 따라서 사단이 칠정이 아니라든지 칠정이 사단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어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가.

병: 마음은 곧 이치이다. 측은히 여기는 것으로 말하면 인(仁)이라 하고, 마땅함을 얻는 것으로 말하면 의(義)라 하며, 상황에 맞는 것으로 말하면 이(理)라 한다.

Q-1.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사단은 칠정을 겸하지 못하나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고 본다.
- ② 을은 사덕(四德)은 맑고 밝은 기가 발한 정을 통해 드러난다고 본다.
- ③ 병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 ④ 갑, 을은 사단은 선한 본성을 형성시키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본다.
- ⑤ 갑, 을, 병은 이치는 마음 안뿐만 아니라 마음 밖에도 있다고 본다.

Q-2. 다음을 주장한 조선 시대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단(四端)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근본이 되는 까닭에 성인(聖人)이 사람을 가르칠 때 여기서부터 공부를 일으키고 여기서부터 기초를 닦아 확충하게 하였다. 만약 사단의 이면(裏面)에 인의예지라는 것이 있어서 은연히 잠복하여 주인이 된다면 이는 맹자의 확충 공부가 그 근본을 버리고 그 끝을 잡는 격이다.

— <보기> —

- ㄱ. 사단(四端)은 인의예지의 본성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 ㄴ. 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 ㄷ.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사단의 확충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다.
- ㄹ. 사단은 일상에서 선한 일을 행함(行事)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05. 조선 시대 사상가 갑은 긍정, 을, 병은 부정의 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성(性)은 이(理)가 아니다. 이(理)는 속성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성이 될 수 있겠는가? 성은 마음 안에 있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嗜好)일 뿐이다.

을: 하나는 기(氣)가 주가 되고 하나는 이(理)가 주가 되기 때문에, 사단(四端)에도 기가 없지 않지만 이의 발이라 하고, 칠정(七情)에도 이가 없지 않지만 기의 발이라고 한다.

병: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원인은 이이다. 이른바 '기가 발함에 이가 탄다.'는 것은 옳다. 다만 칠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단 역시 기가 발함에 이가 타는 것이다.

- ① 인간만이 사단을 확충할 수 있는가?
- ② 사단을 확충해야 인의예지가 형성되는가?
- ③ 마음에 내재한 인의예지를 도덕적 본성으로 보는가?
- ④ 사단은 선을 좋아하는 마음을 실천해야 획득되는 것인가?
- ⑤ 덕(德)은 마음의 이치(理)로서 실천에 의해 만들어지는가?

06. 근대 한국 사상이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정신 수양, 사리 연구, 작업 취사의 삼학(三學)으로써 의식주를 얻고 의식주와 삼학으로써 진리를 얻어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야 한다.

을: 천지만물이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 음식을 먹는 것은 한울님을 먹는 것이니 생명을 함부로 해치지 말라. 어린아이를 때리지 말라. 이는 곧 한울님을 때리는 것이다.

병: 수천 년 동안 쌓여 온 여자의 한을 풀어 천지의 예법을 새롭게 꾸미니 앞으로는 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남자의 권리를 행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① 갑은 불교 사상을 근간으로 한 생활 불교를 표방하였다.
- ② 을은 한울님의 마음이 인간의 본래 마음이라고 주장하였다.
- ③ 병은 사랑과 정의가 넘쳐흐르는 사회의 실현을 주장하였다.
- ④ 을, 병은 내세에서 지상낙원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⑤ 갑, 을, 병은 남녀와 신분의 차별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였다.

0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진실로 때에 맞고 백성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비록 오랑캐의 법이라도 행할 수 있다. 우리의 도(道)로써 저들의 기(器)를 행한다면 오대주는 평정할 것도 없다.
을: 대한의 유교는 백성을 중시하고 대동을 실현하는 정신을 강구하지 않고, 지리멸렬한 공담만 논해 경제에 몽매하다. 양지(良知)의 확충을 통해 개혁하여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

— < 보기 > —

- ㄱ. 갑은 을과 달리 서양의 과학 기술을 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양지(良知)를 확충하면 대동 사회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ㄷ. 갑, 을은 서양의 학문을 통해 정신문화를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유교의 기본 덕목인 효제충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08.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동양의 도(道)를 바탕으로 서양의 기(器)를 받아들이면 지구의 오대주에서 평정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본다.
...(중략)... 그런데 어떤 사상가는 사악한 서양 문물을 거두어 이를 거리에서 불태우면 정학(正學)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는 이 사상가의 견해가 ㉠_____라고 생각한다.

- ① 동도(東道)를 지키는 가운데 외래 문물을 받아들여야 함을 강조한다
② 고유 사상을 기반으로 유교 사상을 새롭게 해석해야 함을 강조한다
③ 선진 문물을 수용하여 전통적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함을 간과한다
④ 시대가 변화해도 전통적 인륜 도덕의 본질은 지켜야 함을 간과한다
⑤ 서양의 발달된 과학 기술과 군사 제도를 받아들여야 함을 간과한다

09. 그림은 수행 평가 문제와 학생의 답안이다. 학생 답안의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수행 평가

◎ 문제 :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비교하시오.

갑: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을: 성인(聖人)이 처음 나시어 덕이 만방에 화하고, 덕이 만방에 화하니 못 백성이 이에 화하다. 이것이 누구의 덕인가, 한울님의 은혜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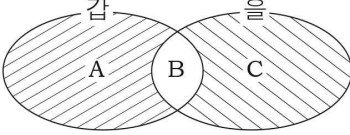
◎ 학생 답안

먼저, 갑과 을은 ㉠우리 민족의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 사상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새로운 민중 종교를 표방하였는데, ㉡갑은 기존의 불교 사상을 개혁하여 생활 불교를 내세웠고, ㉢을은 서구 열강에 대하여 '보국안민(輔國安民)'의 가치를 내걸고 성(誠)·경(敬)·신(信)의 수양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신분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였고, ㉤후천개벽(後天開闢)을 통해 내세에서의 지상 낙원 실현을 내세웠다.

① ㉠ ② ㉡ ③ ㉢ ④ ㉣ ⑤ ㉤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옳은 진술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이(理)와 기(氣)는 혼용되어 원래 서로 떠나지 않는 것이니, 마음이 동하여 정이 됨에 발하는 것은 기요, 발하는 소이(所以)는 이(理)이다. 기가 아니면 능히 발하지 못하고, 이가 아니면 발하는 까닭이 없다.
을: 사단(四端)의 정(情)은 이가 발(發)하여 기가 그것을 따르는 것이니 순선하여 악이 없다. 칠정(七情)의 정은 기가 발하여 이가 그것을 타는 것이니 또한 불선함이 있지 않다.



<범례>

A: 갑만의 입장

B: 갑, 을 공통의 입장

C: 을만의 입장

— < 보기 > —

- ㄱ. A: 사덕(四德)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된 것이 아니다.
ㄴ. B: 칠정은 기(氣)가 발하고 이(理)가 타는 정(情)이다.
ㄷ. B: 기질지성을 본연지성으로 변화시켜야 한다.
ㄹ. C: 사단과 칠정은 정이지만 그 연원이 다른 것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갑, 을은 조선 시대 유학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 정(情)에 사단과 칠정이 분별이 있는 것은 성(性)에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의 분별이 있는 것과 같다. 사단과 칠정이 모두 이기(理氣)를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 주되거나 중요한 것을 가리켜 말한다면 어떤 것은 이라고 하고 어떤 것은 기라고 하는 것이 어찌 불가하겠는가?

을 : 성이란 이와 기가 결합된 것으로 기질 속에 있는 연후에야 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연지성이 기질지성 이외에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만이 존재할 뿐이며, 기질지성은 본연지성을 겸하게 된다.

Q-1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단은 사덕의 존재를 알게 해 주는 실마리인가?
- ② 칠정은 선한 정의 별칭이므로 사단은 칠정을 포함하는 것인가?
- ③ 사단과 칠정은 모두 동일한 근원에서 나오는 것인가?
- ④ 천리(天理)인 사덕은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
- ⑤ 이는 발하는 것이고 기는 따르는 것일 뿐인가?

Q-2. 다음을 주장한 조선 시대 사상가가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질지성이 이미 기호(嗜好)로서 이름을 얻었으면 천명지성(天命之性)도 마땅히 기호로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할 것이다. 기질지성은 단 것을 좋아하고 쓴 것을 싫어하며 향기를 좋아하고 악취를 싫어하는 것이며, 천명지성은 선(善)을 좋아하고 악(惡)을 미워하며 의(義)를 좋아하고 탐욕을 미워하는 것이다.

- ① 사단이란 칠정의 순전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 ② 사단은 본성(性)인 기호의 확충을 통해 생성되는 것이다.
- ③ 천리(天理)인 사덕은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 ④ 사덕은 사단의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 ⑤ 기호의 형성을 위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해야 한다.

12. 근대 한국 사상이 갑, 을, 병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오도(吾道)는 원래 유(儒)도 아니고 불(佛)도 아니고 선(仙)도 아니다. 오도는 유불선 합일이니라. 곧 천도(天道)는 유불선이 아니로되, 유불선은 천도의 한 부분이니라.

을: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서 일원상과 같이 지공무사(至公無私)한 각자의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

병: 만고의 원한(冤)을 풀고 상생(常生)의 도로써仙境(仙境)을 열고 조화정부(造化政府)를 세워 하염없는 다스림과 말없는 가르침으로 백성을 변화시켜 세상을 고치리라.

- ① 갑은 인간은 존엄한 존재로써 만물을 지배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② 을은 세속과 분리되어 해탈을 추구하는 수행을 강조하였다.
- ③ 병은 이와 사(理事)를 함께 추구(並行)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④ 갑, 을은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유 사상을 완성했다.
- ⑤ 갑, 을, 병은 새로운 세상이 도래(後天開闢)한다고 주장하였다.

13. 다음의 <전제 조건>에 대한 조선 유학 사상가 갑, 을의 견해 ㉠, ㉡에 들어갈 말로 옳지 않은 것은?

<전제 조건>

태극(太極)은 이(理)이고 동정(動靜)은 기(氣)이다. 태극을 사람에 비유한다면 동정은 말(馬)에 비유할 수 있다.

갑 : 사람의 몸은 이(理)와 기(氣)가 합하여 생하므로 두 가지가 서로 발용(發用)하며, 그 발(發)은 또한 서로 기다린다. 그러므로, ㉠_____.

을 : 기가 아니면 능히 발하지 못할 것이며 이가 아니면 발하는 근거가 없을 것이니 어찌 이와 기가 발함에 다름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_____.

- ① ㉠ : '사람이 간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다.
- ② ㉠ : 말과 사람이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 ③ ㉡ : 사람은 말의 주재자이고 말만이 갈 수가 있는 것이다.
- ④ ㉡ : 말이 갈 수 있는 근거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다.
- ⑤ ㉠, ㉡ : 말 탄 사람이 길을 가는 것은 기가 발함에 이가 탄 것이다.

14. (가)의 갑, 을, 병은 근대 한국 사상가이다. 세 사상가의 공통된 입장을 (나)에서 고른 것은?

갑 : 우주의 근본 원리인 일원상(一圓相)의 진리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

을 : 한울님을 모시면 조화가 저절로 얻어지고 한울님을 길이 잊지 않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깨달아진다.

병 : 선천 시대에는 원한으로 인해 상극(相剋)이 지배하지만, 후천 시대에는 원한이 풀리고 모든 존재가 상생(相生)한다.

〈보기〉

ㄱ. 정신과 육체의 균형 있는 발전[靈肉雙全]을 강조하였다.

ㄴ.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였다.

ㄷ. 현세에서 이상사회가 실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ㄹ. 일상생활과 분리된 엄격한 종교적 수행을 강조하였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5.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공통된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갑 : 서양 사람은 말에 차례가 없고 글에 옳고 그름이 없으니 도무지 한울님을 위하는 뜻이 없다. 몸에는 기화(氣化)의 신묘함이 없고 학문에는 한울님의 가르침이 없다.

을 : 양이(洋夷)의 화(禍)는 홍수나 맹수의 피해보다 심하다. 사학(邪學)의 무리를 제거하고 바다를 건너오는 적을 정벌해야 한다.

- ① 외세를 물리쳐 국가 존망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② 동서양 사상을 조화시켜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③ 이용후생(利用厚生)을 통해 바른 덕을 실현해야 한다.
 ④ 신분 질서를 개혁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해야 한다.
 ⑤ 전통 도덕을 근본으로 하여 서양 문물을 이용해야 한다.

16. 갑, 을, 병은 유학 사상가들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갑 : 칠정(七情)의 기(氣)에 대한 관계는 사단(四端)의 이(理)에 대한 관계와 같다. 그 발함에 각각 혈맥이 있고, 그 이름에 모두 가리키는 바가 있다.

을 : 칠정의 밖에 다른 정(情)은 없다. 사단은 다만 선한 정의 별칭이다. 따라서 사단이 칠정이 아니라든지 칠정이 사단이 아니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어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가.

병 : 마음은 곧 이치이다. 측은히 여기는 것으로 말하면 인(仁)이라 하고, 마땅함을 얻는 것으로 말하면 의(義)라 하며, 상황에 맞는 것으로 말하면 이(理)라 한다.

Q-1. 갑, 을, 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갑은 사단은 칠정을 겸하지 못하나 칠정은 사단을 겸한다고 본다.
 ② 을은 사덕(四德)은 맑고 밝은 기가 발한 정을 통해 드러난다고 본다.
 ③ 병은 사물의 이치를 깨닫기 위한 공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④ 갑, 을은 사단은 선한 본성을 형성시키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본다.
 ⑤ 갑, 을, 병은 이치는 마음 안뿐만 아니라 마음 밖에도 있다고 본다.

Q-2. 다음을 주장한 조선 시대 사상가가 갑, 을 모두에게 제기할 수 있는 적절한 반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성(性)은 이(理)가 아니다. 이(理)는 속성에 불과한 것인데, 어떻게 성이 될 수 있겠는가? 성은 마음 안에 있는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嗜好)일 뿐이다.

〈보기〉

- ㄱ. 사단(四端)은 인의예지의 본성으로부터 드러나는 것이다.
 ㄴ. 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ㄷ. 인의예지(仁義禮智)는 사단의 확충을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다.
 ㄹ. 사단은 일상에서 선한 일을 행함(行事)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① ㄱ, ㄹ ② ㄴ, ㄷ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1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갑: 동양인은 형이상의 도(道)에 밝고 서양인은 형이하의 기(氣)에 밝다. 진실로 우리의 도를 잘 행한다면 서양의 기를 행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을: 대한의 유교는 백성을 중시하고 대동을 실현하는 정신을 강구하지 않고, 지리멸렬한 공담만 논해 경제에 몽매하다. 양지(良知)의 확충을 통해 개혁하여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

— <보기> —

ㄱ. 갑은 을과 달리 서양의 과학 기술을 부분 수용해야 한다고 본다.
 ㄴ. 을은 양지(良知)를 확충하면 대동 사회 실현이 가능하다고 본다.
 ㄷ. 갑, 을은 서양의 학문을 통해 정신문화를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유교의 기본 덕목인 효제충신을 실천해야 한다고 본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8. 갑은 부정, 을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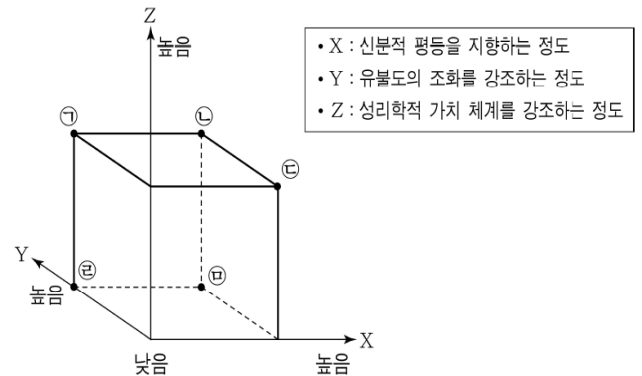
갑: 하늘이 주신 성(性)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한다. 한 가지 일에 마주칠 적마다 그 선함과 악함이 바로 앞에 놓여 있으니, 이 성이 향하고자 하는 쪽을 한결같이 따른다면 아무런 잘못이나 어그러짐이 없을 것이다.

을: 감정에는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두렵고 아끼고 밋고 바라는 일곱 가지가 있을 뿐이니 이 일곱 가지 외에는 다른 감정이 없다. 사단(四端)은 단지 선한 감정을 달리 이름 붙인 것일 뿐이므로, 칠정(七情)을 말하면 사단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① 하늘이 인간의 본성에 사덕을 부여했는가?
 ② 사덕은 사단을 실천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인가?
 ③ 사단은 인간이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것인가?
 ④ 인간의 본성은 후천적 노력에 의해 변화되는 것인가?
 ⑤ 인간은 하늘로부터 자주지권(自主之權)을 부여받았는가?

19. (가), (나)는 조선 후기 사상이다. (가) 사상에 비해 (나) 사상이 갖는 상대적 특징을 그림의 ㉠~㉥ 중에서 고른 것은?

(가) 난세를 구하는 것이 이단(異端)을 물리치는 것보다 급할 것이 없으며, 이단을 물리침이 정확(正學)을 밝히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으니, 정확을 밝히는 것은 다만 한 마음 가운데 천리와 인욕을 구별하는 데 있을 뿐이다.
 (나) 오도(吾道)는 원래 유(儒)도 아니고 불(佛)도 아니고 선(仙)도 아니다. 오도는 유불선의 합일이니라. 유교의 윤리와 불교의 작성과 선도의 양기는 인성의 자연한 품부이며 천도(天道)의 고유한 부분이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0. 조선 시대 사상이 갑~병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 '이(理)는 감정과 의지가 없고 조작 능력이 없다.' 라고 한 것은 이의 본연의 체(體)를 말한 것이고, '그것이 때에 따라 발현되고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라고 한 것은 생성 작용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를 죽은 물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을: 이(理)와 기(氣)는 혼용되어 원래 서로 떠나지 않는 것이니, 마음이 동하여 정(情)이 됨에 발하는 것은 기요, 발하는 소이(所以)는 이이다. 기가 아니면 능히 발하지 못할 것이요, 이가 아니면 발하는 까닭이 없을 것이다.

병: 사람의 마음에서 생생하게 활동하는 이치는 능히 밝게 깨달을 수 있으며 만사에 두루 통하여 어둡지 않다. 이것이 이른바 양지(良知)란 것이고 또 인(仁)이라고 하는 것이다.

① 갑은 이는 형태와 작용이 없고, 기는 형태와 작용이 있다고 본다.
 ② 을은 이가 기보다 먼저 발하여 도덕적 감정이 드러난다고 본다.
 ③ 병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만물에도 이치가 존재한다고 본다.
 ④ 갑, 을은 사단과 칠정이 이와 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고 본다.
 ⑤ 갑, 병은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가 발하고 이가 탄 것으로 본다.

개념 O / X FeedBack :) - 1

- ①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다는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은 사단과 칠정의 원천이 다르며, 사단이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이론이다.
- ②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칠정의 순전한 측면을 가리키는 것이다.
- ③ 이황에 따르면 이는 발하는 까닭일 뿐이고 기는 발하는 것이다.
- ④ 이이에 따르면 사단은 칠정과 마찬가지로 기가 발함에 이가 타서 나타난 정이다.
- ⑤ 정제두는 왕양명의 심즉리설을 계승하여 마음이 곧 이치이며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다고 보았다.
- ⑥ 정제두는 왕양명의 지행합일설을 계승하였으므로 그는 이론적 탐구와 도덕적 실천을 별개로 분리하여 보았다.
- ⑦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사단을 일상에서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 ⑧ 정약용에 따르면 사단은 사덕의 단서라고 본다.
- ⑨ 정약용에 따르면 사단은 인성(人性)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 선을 좋아하는 마음의 경향성에 따라 행위를 함으로써 획득되는 것은 '사덕'이다.
- ⑩ 정약용은 사단을 선천적인 것으로 본다.
- ⑪ 정약용은 사단과 사덕을 동질적인 것으로 보았다.
- ⑫ 동도 서기론과 위정척사 사상은 모두 기존의 유교적 가치 체계를 지키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 ⑬ 박은식은 양명학에 입각하여 유교를 개혁함으로써 유교 문화의 긍정적 요소를 국권 회복 운동에 활용해야 한다는 유교 구신론(儒敎求新論)을 제시하였다.
- ⑭ 박은식이 지지한 양명학의 입장에 따르면 양지는 구체적인 노력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 ⑮ 박은식은 성리학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전통적인 문화를 전면적으로 폐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개념 O / X FeedBack :) - 2

- ① 이황에 따르면 이는 순전한 것이고 기는 선이나 악으로 흐를 수 있는 것이다.
- ② 이이에 따르면 이는 무형이고 기는 유형이므로 이는 통하고 기는 국한되는 것이며, 이는 무위이고 기는 유위이므로 기가 발하면 이가 타는 것이다.
- ③ 이황은 경의 실천을 통해 사욕을 극복하면 마음의 본체인 성(誠)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 ④ 이이는 '선을 좋아하는 기호(嗜好)에 따른 행위'를 강조한 다.
- ⑤ 이이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에 따르면 사단(四端)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나는 것이다.
- ⑥ 이이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에 따르면 성(性)과 정(情)은 다른 것이며, 칠정을 성으로 바꿀 수는 없다.
- ⑦ 이황과 이이를 비롯한 성리학자들은 모든 사물에서 이와 기는 분리된다고 보았다.
- ⑧ 이이에 따르면 기에 동정(動靜)이 있듯이 이에도 동정이 있다. 다시 말해 기가 발할 수 있듯이 이도 발할 수 있다.
- ⑨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타고난 사심(四心), 즉 사단을 확충함으로써 형성되는 것이다.
- ⑩ 정약용에 따르면 사단은 마음의 기호가 아니라 선을 좋아하는 기호에 따라 행위함으로써 형성되는 덕이다.
- ⑪ 동도서기론은 서양 문물의 수용을 통해 전통적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 ⑫ 위정척사 사상은 천주교와 서양 문물을 철저하게 배척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⑬ 이황은 기질지성이 본연지성을 겹하듯이 칠정은 사단을 겹한다고 주장하였다.
- ⑭ 이이는 성을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듯이 정은 사단과 칠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 ⑮ 정약용에 따르면 사단은 타고나는 것이다.

개념 O / X FeedBack :) - 3

- ① 풍류도는 유·불·도가 전래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우리의 고유 사상이다.
- ② 후천 개벽 사상은 동학과는 달리 증산교, 원불교에서 나타나는데, 이는 고단한 현실을 벗어나고자 하는 민중의 소망이 반영된 것이다.
- ③ 우주 만물의 근원을 일원상[○]으로 보는 것은 원불교이다.
- ④ 위정척사 사상은 유교(성리학)를 정통으로 보고 다른 사상, 특히 서양의 사상과 문화를 배척하는 것이므로 조화의 정신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성(誠), 경(敬), 신(信)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은 증산교, 해원(解冤)과 보은(報恩)의 수양을 강조하는 것은 원불교의 사상에 해당한다.
- ⑥ 원불교는 기존 불교를 개혁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제시하였다. 특히 종교적 수행과 사회적 실천을 함께 강조하였다.
- ⑦ 신흥 종교는 모두 고유 사상을 바탕으로 유·불·도를 비판적으로 계승하였다.
- ⑧ 증산교와 달리 원불교는 신분과 성별에 의한 차별이 없는 평등한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고자 했다.
- ⑨ 원불교는 일원(一圓)으로부터 비롯된 일체 중생의 본성은 일원과 하나이며 만물은 결국 하나라고 본다. 따라서 나와 남의 분별, 빈부와 남녀에 따른 차별을 반대한다.
- ⑩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人乃天)과 사람은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시천주(侍天主)는 원불교의 특징에 해당한다.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4회)
사회탐구 영역 (윤리와 사상) - 정답

1	Q-1. ④ Q-2. ②	2	⑤	3	③	4	Q-1. ② Q-2. ②	5	②
6	④	7	④	8	⑤	9	⑤	10	④
11	Q-1. ③ Q-2. ④	12	⑤	13	②	14	②	15	①
16	Q-1. ② Q-2. ②	17	④	18	①	19	⑤	20	④

개념 O / X 정답

(1) O / X / X / O / O

X / O / X / O / O

X / O / O / X / X

(2) O / O / X / X / O

O / X / X / O / X

X / O / X / X / O

(3) O / X / O / X / X

O / O / X / O / X



LUKAS Ethics